

김수환 추기경 교황장 격상 오늘 영결식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이 서울대교구장에서 교황장으로 격상됐다.

〈관련기사 3면〉
서울대교구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9일 교황을 대신해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미사 및 기타 전례를 집전하는 특사로 정진석 추기경을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추기경의 장례는 서울대교구장이 아닌 교황장으로 치러지며 정진석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장의 자격이 아니라 교황의 이름으로 장례미사 등을 주관하게 된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추기경의 장례식이라고 해서 항상 교황장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김 추기경의 경우 전세계 추기경 중 최고령급인 데다 교황이 여러 사정으로 직접 주례를 하지 못하는데 따라 정 추기경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추기경의 임관식이 19일 오후 5시 서울 명동대성당 대성전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주례로 진행됐다.

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장례미사는 명동성당 대성전에서 1시간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 성직자 묘역이며, 낮 12시에 하관 예절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전남 양식어민 ‘대기업 공포’

재벌 양식업 진출 허용... “구멍가게 對 대형마트 싸움”

정부가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을 허용한 데 이어 양식업 진출도 가능토록 해 전남지역 양식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농정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을 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기업의 양식

업 참여를 금지해왔으나, 이번엔 양식업업을 규모화·기업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양식업에 뛰어들면 참다람어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 내수 위주의 양식업이 수출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식어종이 확대되면 연안에 집종된 가두리 양식시설도 먼바다로 옮겨 양식장 주변 해역의 환경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지역 양식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밖에 없어 지역 양식업자의 피해와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전남에서 어·패류와 해조류를 양식하는 곳은 모두 2만5천 여개로, 전국 총 양식업자의 4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연소득 3~4천만 원에 불과한 영세 연안 가두리 양식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최근에 사료 값과 전기료, 인건비는 급등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광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양식어종이 과잉생산되고 있는 상태여서,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양식업 시장에 뛰어들 경우 지역 영세 어가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영래 암도어류양식협회 총무는 “지난 2000년 500여곳이었던 양식업자가 적자를 견뎌내지 못해 지금은 150곳으로 줄었으며, 또다시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한다면 지역 영세 어가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봄비 속 개나리 활짝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雨水·18일) 다음날인 19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화교소학교 교정에 개나리가 만개했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평년보다 1~3도 낮은 0~5도를 기록한 가운데 비까지 내려 시민들은 노오란 꽃잎이 떨어질까 마음을 졸였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J프로젝트 2개 사업지구 중도위 통과

〈삼호·구성지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계획 예정지구 6곳 중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승인신청이 19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J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첫 단추를 꿰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도위는 이날 오후 전남도가 신청한 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구 중 삼호(9.2km)·구성(21.8km)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개 지구 면적은 여의도 면적(8.5km)의 4배에 달한다.

이날 심의 통과는 1·2차 심의 당시 중도위가 요구한 ▲대중교통 체계 ▲자전거 도로 확대 ▲상업용지 규모 축소 ▲완충녹지 추가 확보 ▲주거용지와 학교 배치의 적정성 ▲골프장 수요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전남도가 보완·수정하면서 이뤄졌다.

전남도는 중도위가 지정한 대중교통 부담률을 40% 이상 늘리고, 2개 상업용지 면적을 각각 0.7%, 1%로 축소했으며, 완충녹지 또한 영암호와 금호호 주변 30m~150m까지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통과

후 기업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실시설획 수립 및 승인 단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1단계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4년을 기다려 온 J프로젝트 사업이 한고비를 넘기게 돼 기쁘다”면서 “전남의 미래를 바꿀 J프로젝트 사업을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서남해안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 지역민들이 모든 혜택을 누리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1절 전국마라톤 D-9



東方 神起

2015 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희망 콘서트’
무대를 선사합니다.
광주광역시와 희망 콘서트 광주 유치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기원을 위해 마련한 ‘광주 희망 콘서트’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동방신기를 비롯해, ‘어쩌다’ 등을 히트시킨 여성 듀오 그룹 브라더아이즈,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남상 트리오 V.O.S, 세련된 무대 매너와 춤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신인 가수 태군이 히트곡을 열창합니다.
또 비보이 그룹 ‘메드 펑크’와 ‘무빙스텝’이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광주광역시와 희망 콘서트 광주 유치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기원을 위해 마련한 ‘광주 희망 콘서트’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동방신기를 비롯해, ‘어쩌다’ 등을 히트시킨 여성 듀오 그룹 브라더아이즈,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남상 트리오 V.O.S, 세련된 무대 매너와 춤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신인 가수 태군이 히트곡을 열창합니다.
또 비보이 그룹 ‘메드 펑크’와 ‘무빙스텝’이 역동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정소년 등 광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티켓 오픈 23일
* 일시: 2009년 3월 28일(토) 오후 7시
* 장소: 광주무동경시장 축구장
* 주최: 광주일보사, 데일리민턴
* 주관: 공여나리엔터테인먼트
* 예매처: 광주일보사, 인터넷, 티켓링크
* 공연문의: 062-220-0541, 1544-0943

광州日報社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향출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아모레퍼메픽

향출정 (Hangeuljeong) is a skin care line by Amorepacific.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woman's face and several product bottles. The text highlights the benefits of the products, such as achieving optimal skin balance and providing a 'rest' for the skin. The background is a warm, golden color with a subtle floral pattern.